

성경세미나 05

계시록 사건의 순서



재단법인한국기독교에덴성회

계시록 사건의 순서

발행일 2016년 7월 10일 초판발행
펴낸이 재단법인한국기독교에덴성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매골로 189번지
031-582-7273
info@ieden.kr
<http://www.ieden.kr>

ISBN 979-11-86212-09-7

비매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 15절)

목차

1. 육의 이야기인가, 영의 이야기인가?
2. 감람나무 등장 후 하늘군대 완성
3. 하늘군병 배출 후 예수님의 재림
4. 재림 후 천년세계
5. 천년세계 후 42달
6. 42달 후 짐승의 멸망
7. 짐승의 멸망 후 용의 멸망
8. 마귀 멸망 후 심판
9. 심판 후 천국과 지옥

계시록 사건의 순서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후 그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다(계5:7, 1:1 참조). 예수님은 그 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를 예정하셨음을 알게 되셨고,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를 요구하시고, 이기는 자를 감람나무로 쓰고자 하셨다. 이긴자가 감람나무임은 〈성경세미나3: 누가 감람나무인가?〉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의 군대를 완성하는 감람나무의 사명이다. 그 나머지는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것으로, 하늘군대의 훈련을 위한 천년세계, 천년 이후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42달의 사건, 그 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는 전쟁, 그 후에 용을 잡는 전쟁, 그 후에 최후의 심판,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계시록은 결과적으로 마귀를 잡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귀가 그 내용을 알면 안 되기에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 뜻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자신들이 예언된 감람나무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핵심적인 사건들만 다룰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만 가지고도 계시록의 중요 사건들에 대해 순서를 올바르게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 육의 이야기인가, 영의 이야기인가?

성경의 모든 것을 육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6:63)

또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전15:44)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전15:49)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며,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하는 것도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므로 그 전쟁을 수행해야 할 하늘군대도 영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성도들로 대부분 순교자들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 19:7-8)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19:14)

하나님의 목표는 마귀를 멸망시키는 데 사용할 144,000명의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6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다. 144,000은 그 수가 아직 다 차지 않았으며, 그 남은 수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데려가시고, 그 이후는 육의 세계가 사라지고 영의 세계로 넘어간다.

2. 감람나무 등장 후 하늘군대 완성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늘군대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늘군대에 속하는 자들은 144,000으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배출

하여 그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오셨고(말3:16),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 책을 받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므로 그 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른다(계21:27).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못하고 계신다. 그 수를 채우는 일이 바로 감람나무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흰 돌에 기록한 새 이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계19:12-13 참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2:17)

여기서 흰 돌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마21:42), 그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하나님의 책의 내용을 의미한다(계5:7). 그 내용이 바로 감람나무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 사명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를 배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어린 양의 아내,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르쳐주겠다고 하셨다 (계 21:9-10 참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3:12)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2:26-27)

상이 이렇게 크니 그의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6천 년 간 기다리고 계시며, 예수님은 2

천 년 간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또 그에게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3:21)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셨음을 의미한다. 이긴자도 사명을 완수하고 나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하늘군병을 배출하는 사명은 또 인을 치는 역사와 낮으로 추수하는 역사로 예언되어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계7:14)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인을 다 칠 때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 하늘군병의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되어 있다. 그 군병을 배출하는 일은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것이다. 그때 인 치는 천사가 함께 일을 한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 인 치는 천사와 함께 일을 하는 종들은 성경에 예언된 두 감람나무뿐이다.

인 맞은 자들이 144,000이라고 하였다. 뒤에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았음을 설명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혹자는 이들이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말한다.

6 계시록 사건의 순서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자들이고, 모든 족속에게서 나온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5:9-10)

그래서 144,000을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부른다.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들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상의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군대인 영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다.

인 치는 일이 끝나면 이긴자는 그들을 낫으로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14:14-16)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이긴자요 감람나무임은 <성경세미나2: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때 천사가 곡식이 익는 것을 성전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다. 성전에서 익는 곡식은 바로 성도를 뜻한다. 성도들이 하늘군병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이 천사가 이긴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고, 이긴자는 곡식을 거두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하늘군대를 완성하게 되어 있다.

3. 하늘군병 배출 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하늘군대가 완성된 후에야 오시게 되어 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6:9 - 11)

현재 하늘군병의 자격을 갖춘 순교자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제단 아래에 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기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느냐고 여쭙었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순교자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 수가 차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그 수는 바로 144,000이다. 그 수가 찬 이후의 장면이 아래에 나와 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14:1)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배출하신 성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배출하신 성도들이다.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수가 찬 다음에 그들을 데려가시려는 것이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24:30-31)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족속이 통곡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재림 전에 세상에 임할 재앙 때문이다. 그 재앙을 내리도록 예정된 인물이 바로 감람나무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계11:6)

성경에 재앙을 내리도록 예언된 인물은 감람나무밖에 없다. 모세가 출애굽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감람나무가 마지막 때 세상에 재앙을 내릴 것을 상징한다.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기에 세상에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고 있다. 그 재앙은 계시록에 나팔 재앙으로 예언되어 있다. 나팔은 7개가 있는데, 그 중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내릴 재앙이다. 일곱째 재앙은 나중에 영의 세계에서 마귀와의 전쟁 때 쓰일 것이다.

다섯 번째의 재앙은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9:1-4)

이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 이후에 임하는 것이다.

여섯째 재앙은 다음과 같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계9:14-15)

이것은 바로 감람나무가 인을 칠 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네 천사와 관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을 다 치고 나면 바람이 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을 불 때의 재앙인 것이다.

따라서 감람나무가 하늘군병을 배출하고 나면 그가 세상에 재앙을 내리게 되어 있고, 그 재앙으로 인해 온 족속이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

여 하늘군병의 자격을 갖춘 자들을 데려가시게 된다.

그 후에 우주가 소멸되게 되어 있다. 다섯째 인은 하늘군대의 완성을, 여섯째 인은 하늘, 곧 우주의 소멸을 예언하고 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계6:12-14)

이사야서에도 같은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사34:4)

예수님도 재림 후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셨다.

마24:35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4. 재림 후 천년세계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하늘군병들을 데려가신 후에는 마귀들을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게 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20:1-3)

천 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20:4-5)

위 구절을 보고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다. 왜냐하면 천 년 동안에는 144,000 외에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스릴 백성이 없는 것이다. 백성이 없이 어떻게 왕 노릇 하는가?

이것은 요한 사도가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장면을 보고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장면은 천 년이 지난 후 마귀를 멸망시키고 나서 있을 심판 장면이다.

하늘군병들은 마귀와의 전쟁을 대비하여 천 년 동안 훈련을 하게 된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노래를 배운다고 표현하였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14:3)

5. 천년세계 후 42달

천 년이 지나면 마귀를 무저갱에서 풀어준다. 그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모든 영들을 지배하게 한다.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계20:7)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 13:4-5)

이 42달 동안에 활약하는 짐승은 둘이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

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계13: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계13:11)

첫째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감람나무를 죽인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계11:7)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은 감람나무가 증거를 마친 후의 일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계 11:3-4)

감람나무는 1,260일을 예언하는데, 1,260일은 그들이 증거를 마친 후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갖는 42달과 같으므로 1,260일은 그들이 예언하는 기간이 아니고 예언의 내용이다.

그들이 예언을 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그 후에 천 년이 지나고, 그 후에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감람나무를 죽이는 것이다. 이때 성도들의 권세도 함께 깨어진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13:7-8)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며, 이마와 손에 표를 주어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

더러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 육십육이니라 (계13:15-18)

이것을 사람들은 지상에서 있을 일로 여기고 666이 누구를 가리킨다느니, 바코드나 배리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도 천 년 뒤에 짐승이 나타나는 영의 세계에서 있을 일이므로 지상의 사건이 아니다.

6. 42달 후 짐승의 멸망

42달 후에, 죽임을 당한 감람나무는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계11:11-12)

이때 성도들도 짐승의 핍박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장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계15:2)

천 년 후에 있는 첫 번째 전쟁, 즉 짐승과의 전쟁에서는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후에 이들은 다시 세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전력을 재정비한 후 예수님을 따라 짐승을 잡는 전쟁에 나서게 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19:14)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계19:19-21)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짐승을 잡는 전쟁은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예언되어 있다.

42달 이후에 일곱째 나팔의 재앙, 곧 첫째 대접에서 일곱째 대접까지의 재앙이 이루어진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현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계16:2)

첫째 대접의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니, 일곱 대접의 재앙은 42달 사건 이후에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대접 이후의 재앙이 짐승과 용을 멸망시키는 전쟁이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16:10-11)

다섯째 대접의 재앙이 짐승의 보좌에 임하는 것이므로, 짐승이 권세를 갖는 42달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가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계16:12-16)

여섯째 대접의 재앙에서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가 이루어진다. 이 전쟁은 지상의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마귀라는 영을 멸망시키는 전쟁으로 영의 세계에서 있게 된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움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계16:17-20)

일곱째 대접의 재앙에서 비로소 마귀의 모든 세력이 멸망을 받게 된다. 이때 짐승이 먼저 잡히고 그 이후에 용이 잡히는 것이다.

7. 짐승의 멸망 후 용의 멸망

천 년 후에 무저갱에서 나온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하지만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게 된다. 그러면 용이 직접 군대를 모아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러 나오게 된다.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향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 20:7-10)

용이 잡힐 때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 있으므로 용을 잡는 전쟁은 짐승을 잡는 전쟁 이후에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8. 마귀 멸망 후 심판

용이 잡히면 마귀에게 끌려간 모든 영들이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는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20:10-12)

11절에서, 흰 보좌 위에는 심판하는 자가 앉아있다. 그는 144,000 중에 한 명이다. 이 보좌를 보통 하나님의 보좌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요5:22-23)

그리고 예수님은 순교자들, 곧 144,000에게 심판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셨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계20:4)

9. 심판 후 천국과 지옥

그 심판에 의해서 구원 받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20:13-15)

어떤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21:8)

심판 후에는 144,000은 천국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22:3-5)

따라서 심판 후에 144,000 군데의 왕국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사는 곳을 새 땅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감람나무가 거하는 곳을 새 하늘이라고 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21:1)

그곳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 곧 하늘 군병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게 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계21:27)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마귀를 멸하고 죄악이 없는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마귀와 싸울 군대를 만드시는 것이 6천년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다.

이긴자 감람나무와 하나님의 역사

박상석 · 윤상학



도서출판 북센터
bookcenter

1951년 한국 땅에 첫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1973년에 제2감람나무 역사가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통하여 감추었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고, 또 감추었던 섭리를 알려주심으로써 그 동안 성경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2005년체 출간된 이 책은 감람나무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 땅에서 이루어진 두 감람나무의 역사 및 성경의 핵심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영의 세계에서 큰 상을 받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ISBN 979-11-86212-09-7